

캐나다, 멕시코의 파프리카 수출여건 조사

□ 파프리카 개념 정의

- (파프리카 개념 정의) 피망과 파프리카는 식물학적으로 동일한 작물로, ‘단고추류’에 해당됨
 - 파프리카는 맛이나 향, 식감 등에 차이가 나도록 피망을 인위적으로 개량한 종으로, 한국 원예학회에 따르면 두 가지 모두 ‘단고추류’로 분류됨
 -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매운맛이 약한 벨 형태(Bell Type)의 고추류를 의미하며, 해외에서는 파프리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망의 한 품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캐나다 파프리카 시장

- (생산현황) 파프리카를 포함한 피망의 2017년 생산량은 78,531톤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임
 - 주요 생산지는 온타리오(Ontario)주와 퀘벡(Quebec)주로 2017년 캐나다 생산의 약 96%를 차지함
 - 캐나다에서는 파프리카 재배 시 온실재배를 주로 하며, 생산주기는 10월에서 익년 10월까지임
- (수출현황) 피망수출은 증가추세로, 월별 수출규모로 보면 6~8월 수출이 가장 많음
 - 2017년 수출액은 3억 5,334만 달러(한화 약 3,783억 원)로 2013년부터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세에 있음
 - 월별 수출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4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하다가 9월 이후 하락하는 양상임
 -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99%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흥시장으로 부상
 - 2017년 對일본 수출액은 41만 5,000달러(한화 약 4억 4,800만 원)로 전년대비 3,672% 성장
-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캐나다는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지원이 활발함
 - 캐나다 농림부는 농가 성장 및 소득보호를 목적으로 보험프로그램, 농업대출프로그램, 가격통합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특히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해외시장진출 및 수출기회확대를 목적으로 인증취득 지원, 농업마케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파프리카의 주요 산지인 퀘벡과 온타리오 주정부 지원이 있음

□ 멕시코 파프리카 시장

- (생산현황) 멕시코의 고추류 생산량은 약 274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
 - 멕시코는 중서부의 할리스코(Jalisco)주 등에서 파프리카가 연중 재배됨
 - 연중 더운 기후인 멕시코에서 파프리카는 노지재배를 많이 하며,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해지는 10월경에 재배 및 출하가 시작됨

- **(수출현황)** 멕시코 파프리카 수출은 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금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2017년 수출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1만톤이나 수출액은 10% 하락한 5억 2,878만 달러임
 - 3개년 평균 월별 수출규모를 보면 12월에서 4월 사이 수출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멕시코 파프리카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99.4%가 수출됨
 - 미국은 1994년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채소, 과일, 맥주류의 주요 수출국임
 - 현재 일본 정부와 파프리카 수출 협상단계로, 아직까지 對일본 파프리카 수출은 없음
-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현재 정부차원의 농업개발계획 2013-2018 시행중에 있음
 - 농산물 재배농가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인 직접지불제도가 농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 특히 파프리카의 주요 생산지인 할리스코주, 소노라주, 시날로아주, 타마울리파스주 등을 포함한 11개 지역이 보조금 우선 지급, 한도 상향조정 등 우대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일본 파프리카 시장

- **(생산현황)** 2016년 파프리카 생산량은 약 14만 5,000톤으로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일본에서는 파프리카를 비닐하우스 또는 대형시설에서 재배함
 - 비닐하우스에서는 주로 흙을 기반으로 토지재배 하며, 대형시설에서는 수경재배(용액재배)¹⁾를 주로 실시함
- **(수입규모)** 파프리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의 비중이 높음
 - 2016년 물량 기준 전체 일본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약 74%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캐나다산은 2016년 수입되기 시작하여 수입물량 기준 전체의 약 0.2%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2017년 전년대비 10,5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멕시코 파프리카는 검역협상 진행 단계로, 현재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캐나다산과 한국산 파프리카에는 3%, 멕시코산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됨
- **(수입단가)** 한국산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산 모두 가격변동이 큼
 - 2017년 기준 가장 비싼 가격에 수입된 파프리카는 캐나다 산으로 수입단가가 488엔(한화 약 4,829원)임
 - 한국산 파프리카의 2017년 평균 단가는 kg당 302엔(한화 약 2,988원)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한국산은 타 수입산에 비해 운송비 등의 이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 **(소비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의 가구당²⁾ 연평균 피망 소비량은 2,101g
 - 일본인들이 파프리카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색깔’로 현재 3색(빨강, 노랑, 주황) 파프리카가 주로 유통됨

1) 흙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이 크는데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식물을 재배함

2) 1인 가구 제외

□ 수출경쟁력 비교

- (수입단가 비교) 한국산 파프리카가 캐나다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함
 -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단가는 캐나다산 대비 최소 약 5%(9월)에서 최대 55%(6월)까지 저렴함
 - 현재 멕시코산은 수입되고 있지 않으나, kg당 수입단가는 약 \$1.45가 될 것³⁾으로 추정되며, 일본-멕시코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2017년 국가별 파프리카 수입단가 비교〉

(단위: 엔, 달러/kg당)

구분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수입단가	¥302(약 3,006원)	¥488(약 4,858원)	\$1.45(약 1,550원)

* 주: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단가는 추정치

* 출처: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채소정보종합과약시스템(vegetan.alic.go.jp), Global Trade Atlas

- (유통가능시기 비교) 한국산 파프리카는 연중 수입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과잉기인 5~7월과 11~12월의 수입물량이 높게 나타남
 - 한국산, 캐나다산의 수입 시기는 거의 동일하며, 캐나다산은 특히 한국산 수입이 감소하는 9월의 수입물량이 많음
 - 멕시코산 파프리카는 유통시기를 추정해볼 때, 한국산 수입이 감소하는 1~3월이 주요 수출시기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일본의 월별/국가별 파프리카 수입시기 비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					■	■	■				■	■
캐나다									■			
멕시코	■	■	■									

* 주: 일본의 한국/캐나다 파프리카 월별 수입물량 및 멕시코의 對세계 파프리카 월별 수출량을 바탕으로 산정

- (멕시코산 한국산 비교) 멕시코산의 일본 수출 시 한국산 파프리카 경쟁력 감소 우려有
 -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단가는 한국산에 비해 2~3배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멕시코 FTA로 인한 무관세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멕시코산의 주요 유통시기로 예상되는 12월에서 4월까지 저렴한 멕시코산이 한국산 파프리카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2017년 멕시코산 파프리카 대세계 수출단가, 멕시코(마지닐로나항)에서 일본(도쿄 또는 요코하마항)까지의 해상운송비,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